

1. 행동강령을 반드시 세워야 하는 이유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은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이거나 N 수생, 혹은 그런 자녀를 둔 학부모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두 비슷하고 공통적인 고민을 가지고 계시죠. 저도 불과 4년 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왜 열심히 해도 성적은 오르지 않는지, 왜 저 친구는 나보다 조금 공부하는데 성적이 더 잘 나오는지 등등 학습 방법에 확신은 안 들고 고민만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게임에도 공략집이 있는 것처럼 시험에도 공략집이 있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둑을 둘 때도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라는 대응책이 존재하듯 수능시험장과 같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정해두고 이를 활용해 시험을 공략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 이후로 공부와 동시에 공략집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기출문제들과 사설문제들을 풀어보며 빈출되는 포인트들을 잡아나가기 시작했고, 자주 실수하는 부분들을 모아 지문, 선지, 보기 문제들을 하나씩 정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역 21 수능 국어에서 백분위 98 을 받고, 불수능이었던 반수 22 수능 국어에서 백분위 99 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저의 국어 성적 극복기가 단연 이 행동강령 덕분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2 학년 때까지 국어공부를 하루에 5~6 시간을 해도 잘 오르지 않고 시험장에 가면 실수를 하던 제가 고등학교 3 학년이 되기 전 겨울방학부터 행동강령을 쓰고나서 본 첫 3 월 모의고사에서 1 등급을 받은 것이 잊히지 않습니다.

이후 대학생이 되어 2년 간 8명의 학생을 가르치며 현 수능 기조를 제 행동강령에 꾸준히 반영해왔고 학생들이 학습에 있어 어려워하는 부분을 반영해가며 행동강령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행동강령이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행동강령을 시간이 날 때마다 읽으며 국어 성적 향상에 있어 이 자료가 큰 기폭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행동강령 활용법

① 이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합니다.

② 바로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하나를 제한 시간 80분 내에 풀어봅니다.

③ 채점하기 전에 먼저 시험을 볼 때 나의 심리, 상황, 헛갈렸던 문제나 선지 등을 복기하며 시험지에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 “나 이 문제에서 3번이랑 4번이 헛갈렸어.” 라고 한다면 그 두 선지 옆에 표시를 해두고 왜 헛갈렸는지를 적어둡니다. 또한 시간을 많이 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도 표시를 해두고 왜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생각해봅니다.

④ 이 자료를 시험지 옆에 두고 비교하면서 자료 속의 행동강령 중 적용하지 못한 부분과 적용했던 부분을 표시합니다.